

# ‘새 잡는 유리벽’ 한해 800만마리 폐사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조류가 한 해 800만 마리로 추정된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어 진방 구조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탓에 ‘복수리 스티커(버드세이버)’를 붙여도 소용없는 셈이다. 정부는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일정 간격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환경부는 13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9개월간 전국 56개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인근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는 378마리였다.

멧비둘기가 85마리로 가장 많았고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등의 순이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참매와 긴꼬리딱새가 각 1마리씩 발견됐다.

폐사 조류의 88%는 텃새였고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평균 무게는 25g으로 대부분 작은 새였다.

발견된 폐사체 수를 토대로 건축물·투명 방음벽 통계와 발견물·잔존물 등을 고려한 결과 정부가 추정한 전체 피해량은 연간 800만 마리로 나타났다. 하루 약 2만 마리의 새가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셈이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서는 23만 마리로 각각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 1km당 164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새의 시각적 특성과 유리의 투명성·반사성이 조류 충돌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새의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 때문에 새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해 충돌하는 것”이라며 “폐사 조류 중에는 멸종위기종도 포함돼 있어 동물복지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투명 방음벽의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5x10 규칙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10cm 이하 간격의 수직 무늬, 5cm 이하 간격의 수평 무늬, 빈 공간 50㎠ 이내의 무늬를 뜻한다.

## 환경부, 조류 투명창 충돌 방지 저감 대책 발표

###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일정간격 무늬 의무화

정부는 다음달 중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이 같은 내용의 ‘조류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환경영향 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돼 있는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의 경우 5x10 규칙에 따라 제작된 조류 충돌 방지 테이

프를 부착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 상정성이 큰 건물 2곳과 투명 방음벽 2곳을 대상으로 시범 진행한 후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모니터링과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이 과정은 “새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와 실제 맹금류를 구분할 수 있고 스티커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수량을 붙여야 해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조류는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일정 간격의 줄을 갖거나 점을 찍는 것이 조류 충돌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스



봄 시샘하는 꽃샘추위 찬바람 불며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후 대구 동구 울하동 안심물하체육공원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옷차림으로 산책하고 있다.

## 청암대 박모 교수 벌금형에 이어 사무처장 징역10월 구형

청암대학 미용과 박모교수가 동료 교수에 대한 실습재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의 구약식 기소가 내려졌다.

청암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서 부담하게 징계당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취소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암대학에서는 그 기속력에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 후임을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후임으로 임용된 교수가 허

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박모 교수는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전 조빙교수로 청암대학에 재직하면서 윤 모 교수와 정 모교수와 같이 졸업생들을 찾아가서 사실확인서를 받으려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 씨는 동료교수에 대해 실습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자료를 거짓에 못 찾았느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녹취가 드러나서 너무도 큰 모욕감과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해서 고소를 당

한 것이다. 따라서 박모씨는 위증죄와 또 다른 명예훼손 등으로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2일 대학 총장의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여교수가 스니프와 염분실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녹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주변에 거짓 내용을 유포한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지검, 조합장 선거사범 82명 입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8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13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회중)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총 82명(목포·장흥·순천·해남

지청 포함)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중 16명(2명 구속)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내사중인 인원은 지정 포함 22명이다.

수사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 유형별로는 공표선거가 34명(5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24명(38.1%), 사전선거운동 및 기타 부정선거운동 5명(7.9%) 순이었다.

주준정 기자

## 美 캘리포니아, 사형집행 무기한 중단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비용, 목적성, 인종 간 불균형을 이유로 들며 사형 집행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형 집행을 비윤리적이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뉴섬 주지사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사형을 선고받은 캘리포니아의 교도소에 수감된 737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치사 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을 멈추고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이 이뤄진 샌 퀴엔 주립 교도소의 관련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캘리포니아 사형수 중 60%는 유색인종으로 연구결과를 보면 흑인, 히스패닉보다 백인을 살해한 유색인종 사형수에 대해 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뉴섬 주지사는 부주지사로 재직하지 8년만에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됐다. 그는 가톨릭 신자로 오랜기간 사형 집행을 반대해왔다. 2004년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뉴섬 주지사는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뉴섬 주지사는 13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잘못됐다. 나는 주지사로서 개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감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예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집행은 계획돼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6년으로 당시 76세였던 클라런스 레이 엘런은 20년 전 3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 보잉 737 맥스8 운항 중단, 54개국으로 확대

에티오피아항공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54개국에서 이 기종의 운항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됐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737 맥스의 비행이 중단된 나라는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베트남 등 44개국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이 전날 737 맥스 8 기종과 맥스9의 화외국 상공 비행을 금지하면서 운항 중단 국가가 크게 늘었다. 뉴질랜드 민간항공국도 이날 737 맥스의 비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개 이상의 항공사가 737 맥스의 운항을 중지한 나라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한국, 멕시코, 몽골, 모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으로 확대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한 기종인 보잉 737 맥스를 보유한 항공사는 47곳이다. 현재까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는 전체의 85%가 넘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항공사인 선왕항공은 이날 보잉 737 맥스 8 4대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항공사는 일부 목적지에 비행 규제가 적용돼 안전 문제가 아닌 상업적 문제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美 법무부, 초대형 입시비리 적발

미국 법무부가 대학 입시 비리로 2명의 TV 스타를 포함해, 기업 CEO 등 50명을 기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시 비리로 적발된 대학에는 조지타운, 예일, 스탠퍼드, 텍사스 UCLA 등 명문 대학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의 운동부 코치들은 빚돈을 받고 유명인사 자녀들을 체육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미국 사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빚돈규모는 2500만 달러(약 283억원)로 연방검찰 적발사상 최대 비리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 비리는 1년전 연방수사국(FBI)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우연히 적발됐다며 기소된 50명 중 33명은 학부모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메사추세츠 연방지방검찰청 앤드루 웰링 검사는 “기소된 부모들은 부와 특권을 자녀들의 부정입학에 이용했다”며 “이번 사건은 엘리트 대학과 부유층이 결탁한 입시 비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유층만을 위한 입학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